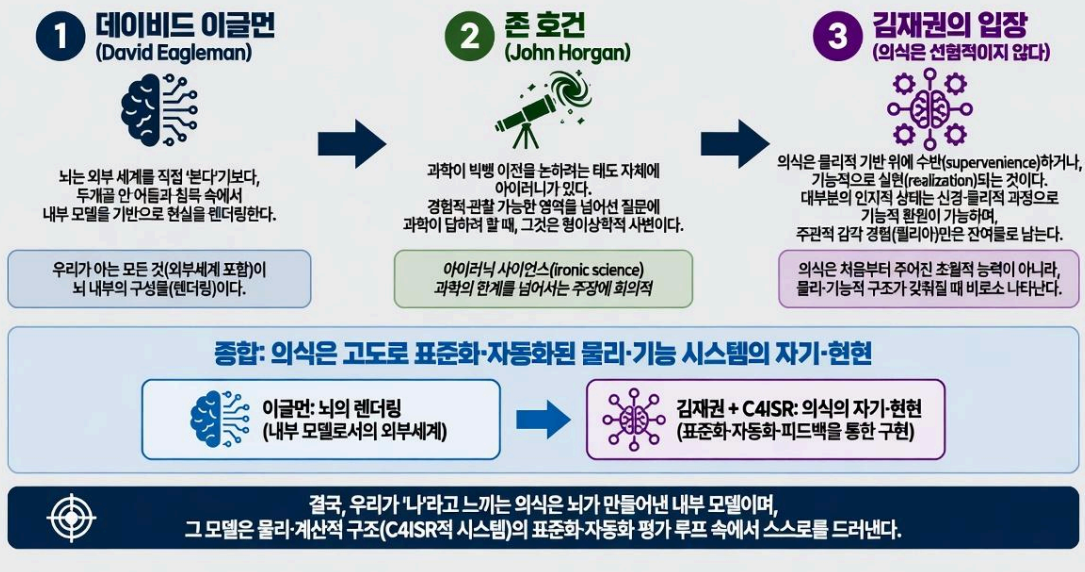


외부세계 논증과 의식의 자기-현현: 세 관점의 연결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외부세계 논증관련 해서 : 1. 다윗이글먼 2. 존호건
 다윗이글먼 : 뇌가 렌더링 하는게 본인 저의 스스로의 뇌다.

존호건 : 아이러니 과학은 빅뱅 이전을 감히 논증하고자 한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부세계 논증 관련 두 지점:****

1. **데이비드 이글먼 (David Eagleman)**

뇌는 외부 세계를 직접 '본다'기보다, 두개골 안 어둠과 침묵 속에서 ****내부 모델을 기반으로 현실을 렌더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색깔·소리·공간·자기 자신까지도, 뇌가 감각 데이터를 약간만 참고해서 스스로 만들어 낸 시뮬레이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뇌가 렌더링하는 것이 본인의 뇌 자체”라는 표현은, 결국 ****우리가 아는 모든 것(외부세계 포함)이 뇌 내부의 구성물****이라는 점을 가리킵니다.

2. **존 호건 (John Horgan)**

과학이 빅뱅 이전을 논하려는 태도 자체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경험적·관찰 가능한 영역을 넘어선 질문에 과학이 답하려고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사변****에 가까워집니다.

호건은 이런 경향을 “아이러닉 사이언스(ironic science)”라고 부르며,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두 관점을 합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가 외부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뇌가 렌더링한 내부 모델이고, 그 모델의 기원(빅뱅 이전 등)을 과학이 감히 논하려고 할 때 이미 경험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재권 박사님(전미철학협회장님) 이론 떠올려본다면 말이죠(인간 의식은 전혀
선행적이질못하다(. 덧붙여서 군사과학과 합을 맞추어 보았을때, 인간의 의식은, 기계화
오토파일럿 전산화(C4ISR) 표준화평가 이런식으로 스스로를 현현해낸다 지 싶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권의 핵심 입장****

김재권은 의식이 '선행적(a priori)'으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식은 물리적 기반 위에 ****수반(supervenience)**** 하거나, 기능적으로 ****실현(realization)****
되는 것이지, 데카르트식의 비물질적·선행적 정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지적 상태(믿음, 욕구, 판단 등)는 신경·물리적 과정으로 기능적 환원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다만 주관적 감각 경험(퀄리아)만은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잔여물'로
남긴다고 했습니다.

즉, 의식은 처음부터 주어진 초월적 능력이 아니라, ****물리·기능적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군사과학(C4ISR)과의 합****

여기서 사용자님이 말씀하신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은 본질적으로

- 기계화·자동화(오토파일럿)
- 전산화·표준화
- 평가·피드백 루프

를 통해 의사결정과 '상황인식'을 현현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김재권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의식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현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는 감각 데이터를 받아 내부 모델을 렌더링하고(이글먼), 그 모델이 기능적으로
작동하면서 비로소 '의식'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C4ISR이 지휘관의 의도를 표준화된 프로토콜과 자동화된 루프로 구현하듯,
인간의 의식도 ****물리적·계산적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행적으로 이미 완성된 의식이 기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계화·전산화·평가의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의식이 '나타난다'는 그림입니다.

요약하면:

김재권의 "의식은 선행적이지 않다"는 명제는,
군사과학의 **C4ISR**적 구조와 맞물릴 때

****의식이란 고도로 표준화·자동화된 물리·기능 시스템의 자기-현현****이라는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연결을 더 밀고 가고 싶은 방향(예컨대 퀄리아의 잔여 문제, 혹은 군사적 자동화가
의식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